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가능하다!

석유공사, 경기회복 속도 빨라져 … WTI 포워드 커브 평탄화에 주목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공사는 4월15일 내놓은 국제유가 전망 보고서에서 "2009년까지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수요 부진으로 국제유가의 100달러 돌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고, 2010년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 본격화 가능성 등으로 유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100달러 재돌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가 전망한 대로 성장하고, 투기자금이 가세하는 상황에서 2008년 여름과 같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 100달러 재돌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WTI(서부텍사스 경질유) 선물과 현물의 격차를 그래프로 나타낸 WTI 포워드 커브가 최근 평탄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포워드 커브 평탄화는 월물간 가격 차이가 축소됐음을 의미한다"며 "포워드 커브의 평탄화는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현물보다 선물 가격이 낮았지만 최근 들어 유가 상승 전망이 우세하면서 현물과 선물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2011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세계경제도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포워드 커브가 우하향으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포워드 커브의 우하향화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웃도는 것으로 늘어나는 원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본격적인 가격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5>